

LG화학, 일본 2차전지 두렵지 않다!

삼성SDI, 생산목표 높여 ... 막강한 메이저 비집고 점유율 15.8% 차지

차세대 2차전지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디지털 시대의 3대 핵심제품 전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쫓고 쫓기는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리튬이온이나 리튬폴리머로 대표되는 2차전지는 1번 쓰면 버리는 1차전지와는 달리 충전이 가능해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등 모바일 기기에 주로 쓰인다.

국내 선두기업인 삼성SDI는 2차전지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판매가 늘자 천안공장의 2차전지 월 생산능력을 2002년말 720만셀에서 2003년말 1800만셀로 높일 계획이다. 2005년까지는 2300만셀로 대폭 늘려 세계 시장 점유율 25%, 연간매출 1조원을 달성해 명실공히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이다.

또 2003년에는 기존의 HP, 지멘스 외에도 델, 노키아, 모토로라 등 대형 거래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LG화학도 충북 청주공장의 생산능력을 2002년말 월 430만셀로 늘린데 이어, 2003년에는 월 900만셀, 2005년에는 월 1500만셀로 확충할 예정이다.

SKC는 2003년 상반기까지 300억원을 투자해 현재 월 25만셀 수준인 리튬폴리머전지 생산능력을 120만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기업들의 공격 경영으로 일본의 철옹성으로 여겨지던 2차전지 업계의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0년 2.5%에 불과하던 한국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1년 9.6%, 2002년 15.8%까지 급상승했다. 2005년에는 28.8%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일본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94%에서 2002년 71.6%로 급락한데 이어, 2005년 54.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과 2002년 정보기술(IT) 경기 악화로 설비투자를 제대로 못했던 일본기업들은 한국기업들이 빠르게 쫓아오자 최근 신규라인 증설은 물론, 기업 간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견제에 나서고 있다.

세계 1위 기업인 산요는 2002년말 업계 4위인 지에스(GS)-멜코텍(GSMT)의 지분 51.1%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월 1억셀 규모의 리튬이온전지 신규라인 1개를 증설했다. 2003년 1분기에 또다시 2개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

2위 기업인 Sony도 2003년 1분기까지 월 생산능력 100만셀 수준의 리튬이온전지 1개 라인을 증설할 방침이다.

히타치는 2003년 상반기까지 80만셀 수준의 월 생산능력을 갖춘 각형 리튬이온전지 신규라인 1개를 추가로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시는바는 2002년초 리튬이온전지 5위 기업인 ATB를 인수했다.

한편, 국내 2차전지 업계에서는 한국기업의 공격적인 전략으로 2003년 세계시장 점유율은 정부 전망치보다 높은 20%를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3/27>